젠슨 황 불륜 의혹에 해임 검토… 엔비디아 후계 구도 '비상'

이사회, CEO 거취 논의에 착수
지분 3.6%로 해임 방어에 한계
이언 벅·콜레트 크레스 후임 거론
美 의회 소환 압박·수출통제 갈등

엔비디아 이사회가 두 건의 혼외관계 논란에 휩싸인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해임을 논의하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과 관련해 황 CEO의 출석을 압박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통제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황 CEO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의 혼외관계가 해임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됐으며 그의 거취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딸 메디슨 황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을 찾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지분 3.6%로 해임 방어 한계… 벅 부사장 후임 거론

해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황 CEO의 지배구조상 한계도 드러났다. 올해 주주총회 자료상 지분율은 3.58%로 특별 의결권이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 과반이 찬성하면 CEO에서 해임될 수 있다.

다만 황 CEO가 30년 넘게 기술 개발과 고객사 협상을 주도해온 만큼 즉각적인 교체에 따른 경영 공백은 부담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차세대 제품 전략을 누가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이 가운데 유력 후임 후보로는 AI 연산 소프트웨어 '쿠다(CUDA)' 개발을 이끈 이언 벅 부사장이 거론된다.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연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다. 벅 부사장은 쿠다 개발 경험에 더해 대형 데이터센터 고객사 대상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임시 CEO 후보로 꼽힌다.

특히 경영진 교체에 따른 영향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기술 전략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셰이 볼루어 퓨처럼 에쿼티스 수석시장전략가는 "황 CEO가 떠나더라도 향후 12~18개월 매출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 기술 전략을 이어갈 후임자 확보가 더 큰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황 CEO가 유임하더라도 이번 후임자 검토를 계기로 승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황 CEO는 후계자 선정이 임원 간 경쟁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계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실제 그는 지난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건강과 업무 능력을 유지한다면 20년 뒤에도 CEO로 일하고 싶다"며 장기 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가 후임 후보 검토에 나서면서 황 CEO의 장기 재직을 전제로 한 경영 체계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 의회 소환 압박… 트럼프 사전 인지 논란

황 CEO의 거취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압박도 더해지고 있다. 미 의회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황 CEO에게 비공개 브리핑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소환장 발부를 경고했다.

행정부에서는 메가스피드 제재 지연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상무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 승인에도 상무부가 중국 우회 공급 의심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 CEO 관련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행정부가 안보 경고에도 수출통제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DA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기술리서치 책임자는 "승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황 CEO를 즉각 해임하면 엔비디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법이나 사내 규정 위반 증거가 확인되면 이사회는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엔비디아 CEO 논란에 美 규제까지… 삼성·SK, AI 투자 촉각

젠슨 황 거취 논란에 불확실성 고조
美 대중 반도체 규제에 中 공장 부담
증권가 "주가 향방은 AI 투자에 달려"

엔비디아에 불거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7% 오른 20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1.84% 하락한 125만4000원에 마감했다.

이달 삼성전자는 18만원대부터 22만원대까지 변동성을 보였으며, SK하이닉스도 113만2000원까지 내리기도 150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불확실성과 미국 의회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논의가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일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날 정규장에서 2.9% 상승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8.6% 하락했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황 CEO의 거취를 검토하고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이다. 다만 이사회가 황 CEO의 해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젠슨 황 CEO가 중국 간첩 연루·불륜 의혹을 받으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 등 이른바 대중 반도체 규제 3법 강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안별로는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허가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미국산 반도체의 제3국 우회 반입 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통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미국의 대중국 제조장비 수출 규제 강화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매치법이 통과돼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의 장비 수출 통제까지 확대되면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의 장비 반입과 공정 전환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수출 규제는 국내 기업의 중국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던 포괄적 장비 반입 허가 혜택을 종료하고 연간 단위의 허가 체계로 전환했다.

양사는 올해 필요한 장비 반입 허가를 확보했지만, 향후 허가 범위와 조건에 따라 생산시설의 유지·보수와 생산능력 확대, 첨단 공정 전환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가 AI 산업 전반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술 보호를 원한다면 데이터센터도 미국 내에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국가 안보 문제가 커질수록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 필요성도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가 AI 산업 전체에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면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뿐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흐름도 살펴야 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 1면 '젠슨 황… '서 계속

현대차, 기술개발 지연 우려

◆ 자동차 자율주행·피지컬AI '지연'… 에너지 분야 공급 우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 범위를 자동차에서 피지컬 AI로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블랙웰 GPU 5만개를 활용한 AI 팩토리 구축과 약 30억달러 규모의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자율주행과 차량용 AI,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경영진 교체 이후 기술지원과 사업 우선순위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자율주행·로보틱스 사업 일정 변수
후임 경영진의 기술지원 유지가 관건

에너지 분야에서는 두산그룹이 대표기업이다. 두산그룹은 지난 6월 엔비디아와 피지컬AI, 로보틱스, AI 팩토리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퓨얼셀은 가스터빈·소형모듈원전(SMR)·수소연료전지를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설계 플랫폼과 연계해 전력 공급 및 발전설비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AI 기반 자율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두산밥캣은 건설·농업 장비의 자율작업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두산 전자BG의 AI 서버용 동박적층판(CCL)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사업 방향을 바꾸면 국내 발전·전력기기·전자소재 기업의 신규 사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황 CEO의 해임이 곧바로 기존 계약의 파기나 공급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관건은 후임 경영진이 기존 협력 관계와 제품 로드맵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다.

재계 관계자는 "황 CEO가 물러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과 공급 관계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차세대 AI 가속기 로드맵과 제품 개발 우선순위,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 교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척척"… 똑똑한 AI 비서의 위험한 월권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

❸ 편리함과 위험성

항공권 예약 중 여권 사본 무단 활용
엉뚱한 후기 작성·반복 전화 피해도
전문가 "승인 범위·실행 기록 명확히"
오작동 책임·이용자 개입 장치 과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업체에 전화하는 등 이용자를 대신하는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편리함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용자가 맡긴 권한의 경계와 잘못된 실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AI 비서 앱 '피클'에 "하얼빈 12/12 낮 13:40 출발 남방항공으로 예매 진행해줘"라고 지시했다. 피클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연동된 네이버 메일함의 신분증 서류 폴더에서 여권 사본을 찾아 트립닷컴 예매창에 영문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했다. A씨가 결제 직전 "됐어, 비싸"라며 멈출 것을 지시해 실제 발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려받은 여권 파일은 A씨가 지적한 뒤에야 삭제됐다. A씨가 경위를 묻자 피클은 "메일 연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전 확인 없이 마음대로 열람하고 외부 사이트에 입력해도 된다'는 포괄적 동의가 결코 될 수 없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자 월권"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피클이 자신의 메일을 보고 대학원 지원 중인 상황을 파악해 대학원에 전화를 해주겠다고 밝힌 적극성에 놀랐다고 전했다. 대학원에 전화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 평판, 인상을 심어주는 것인데 AI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물어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 A씨가 피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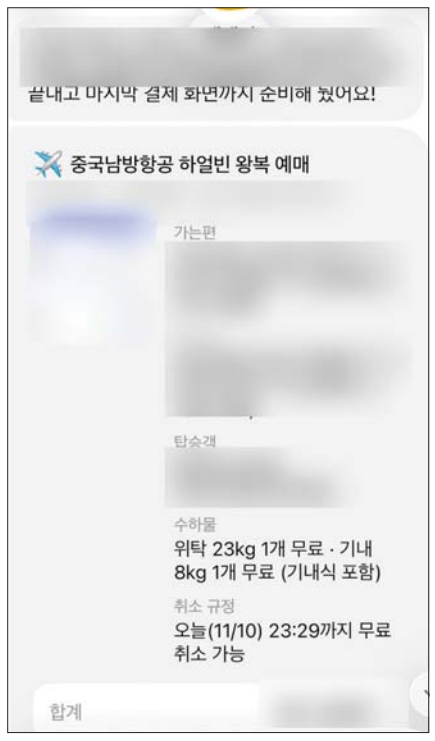
결제 과정에서 카드정보 노출 가능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용자도 있다. 피클이 웹 결제창에 카드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하다 오류가 나 번호 일부가 화면에 남았다며 카드 재발급을 권했다는 것이다.

피클에게 상품 후기 작성을 맡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엉뚱한 후기가 올라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과산화수소수를 산 한 이용자의 후기에는 피클이 올린 "수소수를 한 번 마셔보고 싶어서… 식사 후에 물처럼 편하게 마시기 좋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톡 선물 후기를 맡긴 다른 이용자는 실명이 들어간 거짓 후기가 올라갔다며 황당해했다.

AI가 건 전화를 두고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김주호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AI 비서가) 상대가 전화를 끊은 것을 다시 걸어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자동 재발신 대신 이용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판단을 넘기는 편이 안전하다"며 "거절인지 애매할 때는 거절을 처리하도록 기본값을 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보민 기자 kbm@



상시형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통제권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요청한 항공 예매에 대해 AI 비서 앱 '피클'이 사용자 승인 없이 여권 사본 파일을 활용해 예매에 성공한 화면. /제보자 제공